

민주 '광주 서구를' 전략 공천하나... 정치권 관심 집중

광주·전남 18곳 중 유일 전략선거구...단수 공천 등 방식 주목 일부 후보 반발·시민단체는 '무공천' 촉구...다음달 5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중 유일하게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대한 후보 공천 방식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략선거구인 만큼 전략공천 또는 단수 공천, 후보 경선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어 향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택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 경쟁에 돌입한 예비후보들은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광주시민단체들은 민주당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시끄러운 모양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광주 서구를 선거구는 현역인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다. 광주·전남지역 18곳 선거구 중 유일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관위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

다. 공모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다른 선거구처럼 후보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

이 선거구에는 민주당 예비후보로 김경만 국회의원(비례)과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었던 터라 이들은 향후 중앙당의 공천 방식을 예의 주시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 후보는 중앙당과 공관위 측에 후보 경선 방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만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하는 전략 공천을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 공관위는 서구를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한 후보자 선출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앙당이 광주 서구를 선거구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만큼 모든 재량권은 공관위 결정에 달렸다.

특정 인물 또는 영입 인재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있고, 기존 예비후보들 중 1명을 단수 공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전략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할 경우 향후 지역구에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해 후보 경선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략 선거구인 만큼 후보 공천을 위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도 모른다"면서도 "일부 예비후보들이 전략공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호남도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는 수십 년 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유지될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쏠림현상이 뚜렷한 곳이다"면서 "민주당이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단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통 큰 정치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하고 같은달 5일께 컷오프 결과와 전략 공천 지역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김정현 "우산동 파크골프장 공사비 10억 확보"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현 예비후보는 29일 "광산구 우산동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0억원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유 의동 정책위원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한 비용과 골프와 같은 재미, 3세대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파크골프가 전국적인 인기 스포츠로 부상하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골프장 인프라가 부족해 광산구에 추가 건립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 현재 광산구 파크골프협회회는 지난 2018년 7개 클럽에 회원 140명이었으나, 올해는 32개 클럽 4000명의 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권 생활권수 공간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매년 증가하는 실버계층들이 야외 생활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이용 추세에 따라 광산구에 파크골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주철현 "여수엑스포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여수시갑 예비후보

주철현 민주당 여수시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29일 "여수엑스포역을 전남 최초 '광역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열차·항공기·선박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 기능과 상업 업무 등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환승시설과 환승 지원시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한다.

여수엑스포역이 환승센터로 개발되면 주저난 해소와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환승



가능뿐 아니라 여수항에 입항하는 국제 크루즈와 여객선, 항공,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시외버스를 연결하는 종합 교통연계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주 후보 설명이다.

주 후보는 여수엑스포역을 동대구역, 잠실역, 유성역, 울산역처럼 교통환승 기능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포함된 '전남 최초'의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조성, 여수시를 남해안남중권의 교통 요충지,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로 건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준석·양향자 합당명은 '개혁신당'

선거 후 '한국의희망' 개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합당 이후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되, 4·10 총선 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과 한국의희망 윤미혜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진보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합당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양당의 합당 절차는 각 당의 추진 절차를 거쳐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합당 형식은 '당 대 당 통합'의 신설 합당으로 하고, 당명은 '개혁신당'으

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각각 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희망 측은 "총선까지는 통합당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당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유일한 현역 의원인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를 제외하고 각당이 2명씩(원내대표 포함)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부총장은 한국의희망이 각각 추천해 정할 계획이다. 정당·정책은 한국의희망 정당·정책을 우선시해서 개정하며, 당헌은 개혁신당 당헌을 골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는 4·10 총선이 끝나고 60일 이내에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 여사 의혹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력 허위 표기 논란' 노형욱 예비후보 고발

시민단체 광주·전남시민행동

시민단체 광주·전남시민행동이 최근 학력 허위 표기 논란에 휩싸인 노형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표기죄 위반 혐의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광주·전남시민행동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노 예비후보는 학위가 없음에도 당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속였다"며 "노 예비후보는 명함에도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국제경제학과 석사'를 표기해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살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 예비후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파리정치대학

시앙스포 국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며 "파리정치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를 졸업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노 예비후보는 이 과정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석사'로 표기했다고 하나 이는 석사 과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된 '학력 표기 오류'는 2020년 국무조정실장을 마치고, 서울대에 서강의한 것이 마치 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062-449-4446